

2020
청소년 민주체험 워크북

인천
미즈리드

민주주의 역사를 찾아서

주최  인천광역시교육청주관  인천민주화운동센터

차례

민주로드 여행가기 전 마음가짐	03
------------------------	----

I. 중구·동구권

① 창영초등학교-답동성당-인천감리서 터	05
청량중학교 (김정윤 신연희 조나영)	
② 인천도사산업선교회-동일방직노동조합-인천축항	12
부일중학교 (김지후 박용진 엄설원 임수민)	

II. 주안권

③ 인천기계공고 4·19학생의거 기념탑-5·3인천민주항쟁 터	20
인천청라고등학교 (김우석 이해민 장준현 조연우)	

III. 부평권

④ 신트리공원-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외골공원-기천아트 -주안5동성당	27
강화고등학교 (김하준 김한기 현재근)	
⑤ 부평공원 일대-부평역광장-신트리공원	37
인천상정고등학교 (박주원 윤현수 황윤성)	

IV. 서울·경기권

⑥ 민주인권기념관	42
부평동중학교 (백승욱 한태희)	
⑦ 사형장-격벽장-신민회-서대문형무소	47
송도고등학교 (김석우 심경수 양석현 최재일)	
⑧ 전태일묘역-최명아묘역-김용균묘역	54
명신여자고등학교 (유민영 최윤정 홍민주)	
⑨ 전태일묘역-이소선묘역-문익환묘역	63
인천남동고등학교 (권민서 김기현 안준형 이상목)	
⑩ 우동민묘역	68
인천초은고등학교 (이봄 조세현)	



여행 가기 전 마음가짐

우리 고장 인천, 이제 동북아 내 최고의 국제도시로 발돋움했습니다. 멋진 경관과 문화가 공존하며 발전해왔으며 그 발전의 중심에는 산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산업 뒤편에는 누군가의 희생이 항상 존재했습니다. 바로 우리의 가족이자 친구인 노동자입니다. 이들은 우리가 눈을 감은 채 찾아가지 않으면 보지 못합니다. 그저 잊혀질 뿐입니다. 그래서 눈을 뜨고 그들을 잊지 않기 위해 이 여행을 기획했습니다.

여행의 목적은 교육의 목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학습(學習)은 주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 목적은 공감(共感)입니다.

그들이 남긴 자취를 그저 보고 머리로 인지하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나아가 그들이 했던 생각과 느꼈던 감정들에 공감하며, 시민의식을 심는 것이 여행의 주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여행 전에 우리 모두 열린 마음을 갖고 여행에 참가했으면 하여 이 글을 남깁니다.

강화고등학교

글쓴이 김하준, 김한기, 현재근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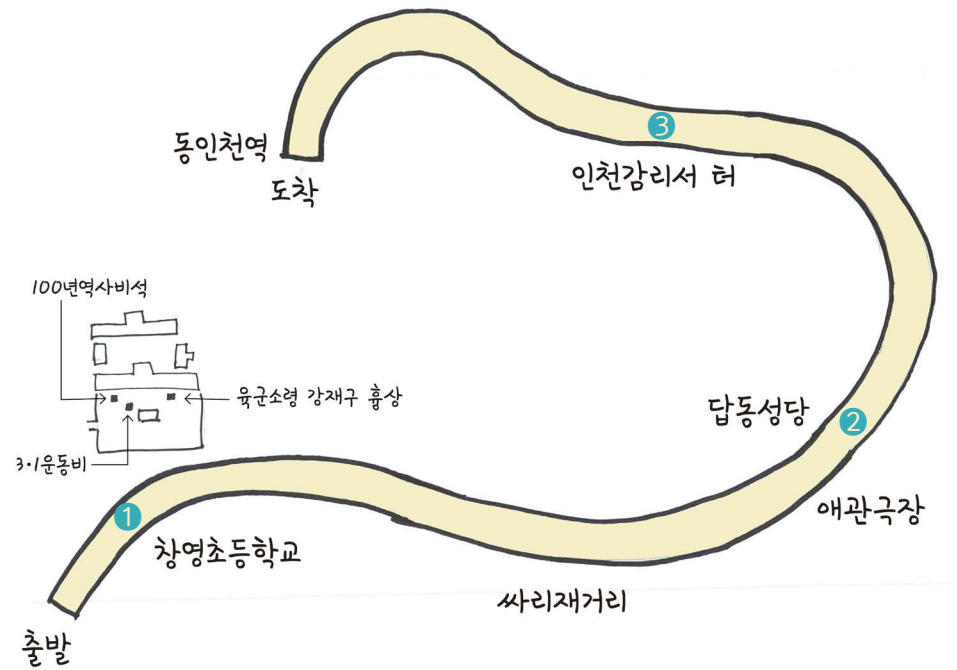
중구·동구권

I



1

창영초등학교 - 답동성당
- 인천감리서 터



청량중학교

만든이 김정윤, 신연희, 조나영

① 창영초등학교(인천공립보통학교)

창영초등학교는 1907년 5월 6일 신교육을 통한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인천의 선각자들이 뜻을 모아 세운 인천지역 최초의 공립학교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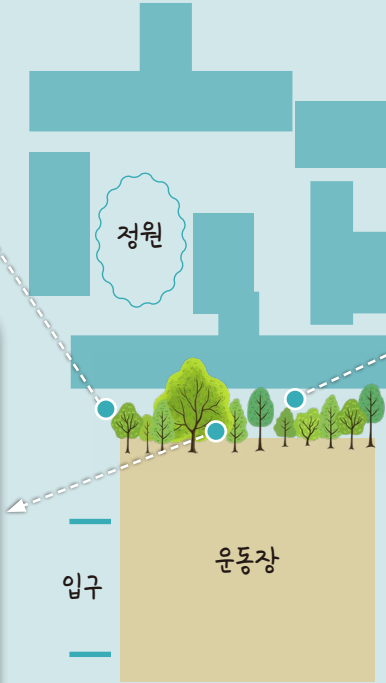
1919년 3·1독립선언이 발표되자 인천공립보통학교 학생 김명진(당시 18세)과 이만용(18세), 손창신(16세), 박철준(19세) 등이 인천공립보통학교 학생들과 함께 1919년 3월 6일 동맹휴학을 일으키고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100년역사비석



3·1운동비



육군소령 강재구 흉상

나라면, 3·1운동비에 어떤 내용을 쓸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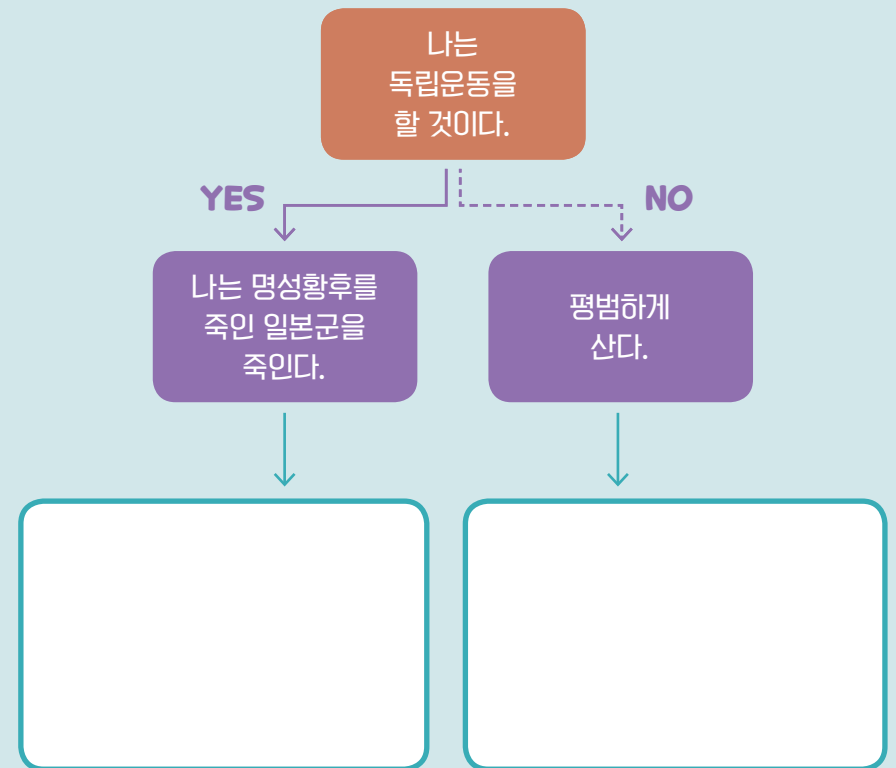
③ 인천감리서 터

인천감리서는 개항시기에 새로운 국제관계에 대처하기 위하여 외교사절의 상호교환과 주재외국인 거주지 설정, 외국상인들의 출입, 선박의 입출항 및 국제교육의 통상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883년(고종 20년)에 설치되었다.

1896년, 백범 김구가 황해도 안악 치하포에서 쓰지다 (명성황후를 시해한 일본군 중위)를 살해한 후 수감되었던 장소이기도 하다.



빈칸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 이유를 써보세요



2

인천도시산업선교회 - 통일방직노동조합 - 인천축항



부일중학교

만든이 임수민, 엄설원, 김지후, 박용진

1 인천축항(자유노동조합)

인천축항은 김구 선생이 감옥에 있을 당시 노역을 했던 곳으로 김구 선생의 독립 운동 자취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곳이다. 또한 이곳의 부두노동자들은 다양한 역사적 혼란기를 겪으면서도 노동자 스스로 조직을 정비하여 1945년 10월 최초로 인천자유노동조합을 창립하였다. 현재는 인천항운노동조합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활동하고 있다.



② 동일방직노동조합

초성에 들어갈 말을 쓰세요

(1) 인천축항은 그 선생이 감옥에 있을 당시 노역을
하였던 곳이다.

(2) 이곳의 부두노동자들은 1945년 10월 최초로
오토조일노조를 창립하였다.

(1)

(2)

동일방직노동조합은 1972년 회사측의 방해공작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지부장과 여성집행부가 탄생한 노동조합이다. 1978년 2월 회사측 노조원들이 선거하러 들어오는 여성조합원에게 똥물을 투척하는 등 회사와 정보기관의 온갖 탄압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싸웠던 대표적인 여성노동운동의 산실이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제공>

③ 인천도시산업선교회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방법 3가지를 써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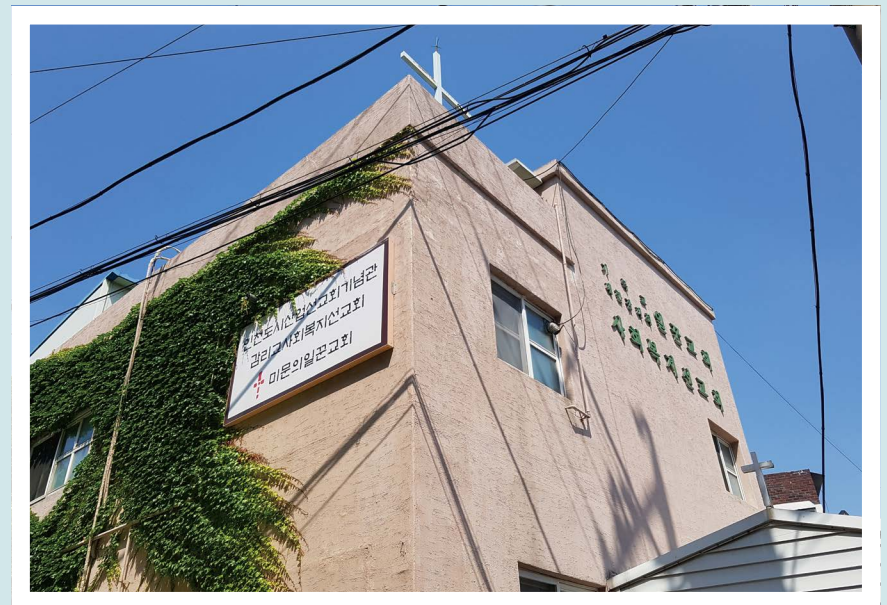
1.

2.

3.

인천도시산업선교회는 산업사회의 민주화와 평화를 위해 동일방직, 인천중공업 등 노동자들의 부당한 탄압에 대항하고 인천노동자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많은 활동을 전개하였다.

인천도시산업선교회는 산업화과정에서 동일방직, 인천중공업 등 노동자들에 대한 부당한 탄압에 대항하고 그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활동하였다.



자신이 산업선교회를 만든다면
주민들과 하고 싶은 일을 써보세요

1.

2.

3.

주안권



3

인천기계공고

4·19학생의거 기념탑

- 5·3인천민주항쟁 터



인천청라고등학교

만든이 조연우, 장준현, 이해민, 김우석

① 인천기계공고 4·19 학생 의거 기념탑



3·15 부정선거 규탄시위로 시작한 4·19혁명은 전국적으로 들불처럼 일어났다. 3·15부정선거 규탄시위 참여 후 마산앞바다에서 발견된 김주열의 시신발견에 가장 분개한 이는 같은 나이 또래인 고등학생들이었다.

각 학교 대표들은 비밀스럽게 모여 4월 19일 전후로 시위를 계획하였고 인천기계공고는 인천 4·19혁명의 시작점이었다.

“젊은 학도들은 겨레의 힘이요 나라의 기둥이다. 특히 정의를 위하여 목숨을 아끼지 않는 화랑의 후예들은 이 정권의 부패와 3·15 부정선거에 항거하여 학생혁명을 이르켰고 4·19날 인천에서 의거의 횃불을 먼저 높이 밝힌 이가 우리 공고 학생들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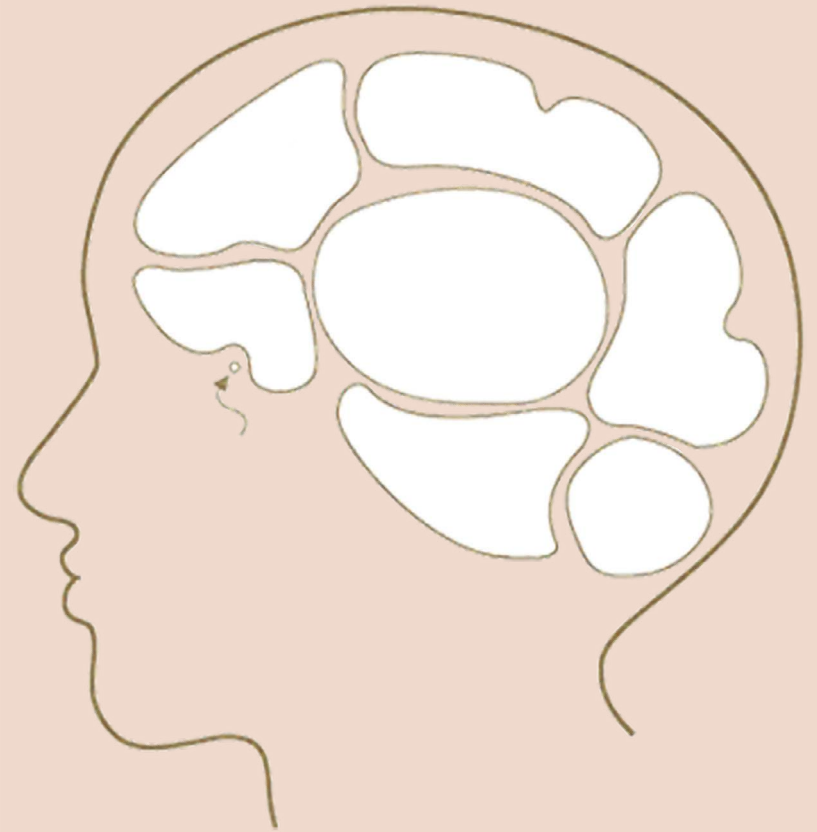
- 기념탑 글 중

〈인천공업고등학교 경인중학교 학우회장 김종무〉

생각해 봅시다

만약 이러한 일이 다시 일어난다면 나는 시위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4·19혁명에 참여한 학생들의 뇌 구조를 그려봅시다



② 인천5·3민주항쟁 터



<학산문화원 제공>

1986년 5월 3일 인천5·3민주항쟁 터(옛 인천시민회관)에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는 학생, 노동자 등 시민들이 함께 민주항쟁을 일으켰던 곳이다.



<학산문화원 제공>

4행시

인천5·3민주항쟁에 참여했던 시민들을 기억하며
4행시를 지어 봅시다.

5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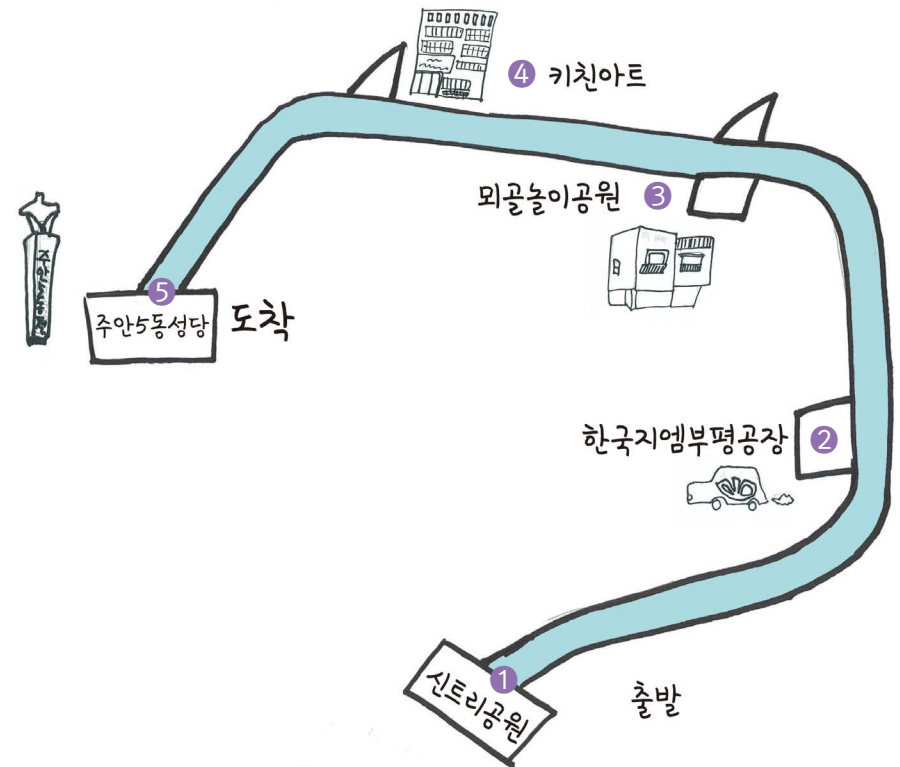
항

쟁

부평권



- 4 신트리공원 -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한국GM부평공장)
- 외골공원 - 키친아트
- 주안5동성당



강화고등학교
만든이 김하준, 김한기, 현재근

① 신트리공원(박영근 시비)

노동자 시인 '박영근'의 시비가 있는 곳이다.
그가 지은 한 편의 시는 위로가 되기도, 휴식을
제공하기도 했다. 노동자뿐 아니라 시민 모두의
휴식 공간인 이곳에 가서 박영근 시인의 혼이
담긴 시를 감상해보는 것은 어떨까?



다음 시의 빈칸을 채워보세요.

제목 :

부르네 물억새 마다 엉키던
아우의 피를 무심히 씻겨간
빈 나루터, 물이 풀려도
찢어진 무명베 곁에서 봄은 멀고
기다림은 철없이 꽃으로나 피는지
주저앉아 우는 누이들
웃고름 풀고 이름을 부르네

셋바람에 떨지 마라
어널넬 상사뒤
어여뒤여 상사뒤

(중략)

살아서 가다가 가다가
허기 들면 슬눈 씹다가
쌍이는 들잠 죽창으로 찌르다가
네가 묶인 곳, 아우야
창살 아래 또 한 세상이 묶여도
가겠네, 다시
만나겠네.



②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한국GM 부평공장)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는 인천의 대표적 대기업 노동조합으로 1963년 신진자동차 노동조합으로 출발하였다. 1985년 임금인상투쟁을 시작으로 정리해고 및 해외매각 반대 투쟁을 강력하게 전개하였으며, 87년 노동자 대투쟁 등 지역의 노동운동을 활성화 하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 대표적인 노동조합이다.



<한국지엠인천부평공장. 한국지엠 제공>



위 사진처럼 상황에 따라 공장 주변에는 여러 플래카드들이 걸립니다. 우리도 노동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플래카드에 들어갈 문장을 써 볼까요?

③ 외골공원

외골공원 지역은 1980년대 노동 때문에 바쁜 삶을 살고 있던 노동자들이 아이들을 서로 맡아서 돌봐주는 마을공동체였다. 이곳은 현재 지역 공동체의 활성화와 마을 복지를 위한 문화회관으로 사용하고 있다.



‘동네야 놀자’를 넣어 내가 살고 있는 동네를 소개해 보세요.



<출처 : 인천in, 2018.2.23. 기사중>

‘동네야 놀자’

④ 경동산업(현 키친아트)



경동산업(현 키친아트)은 1960년 영등포에 국내 최초 양식기 공장이다.
1983년 인천 서구 가좌동에 제2공장이 세워졌다.

- 1984년 노동조합 설립
- 1987년 민주노조 설립을 위한 싸움 진행
- 2001년 공동소유, 공동책임, 공동분배를 내세운 (주)키친아트 설립

⑤ 주안5동성당

주안5동성당은 지역 노동운동과 민주화 운동을 적극 지원했던 호인수(베네딕토) 신부의 주도로 미사·야간고등학교 운영·무료 진료·법률상담 등 주안공단 노동자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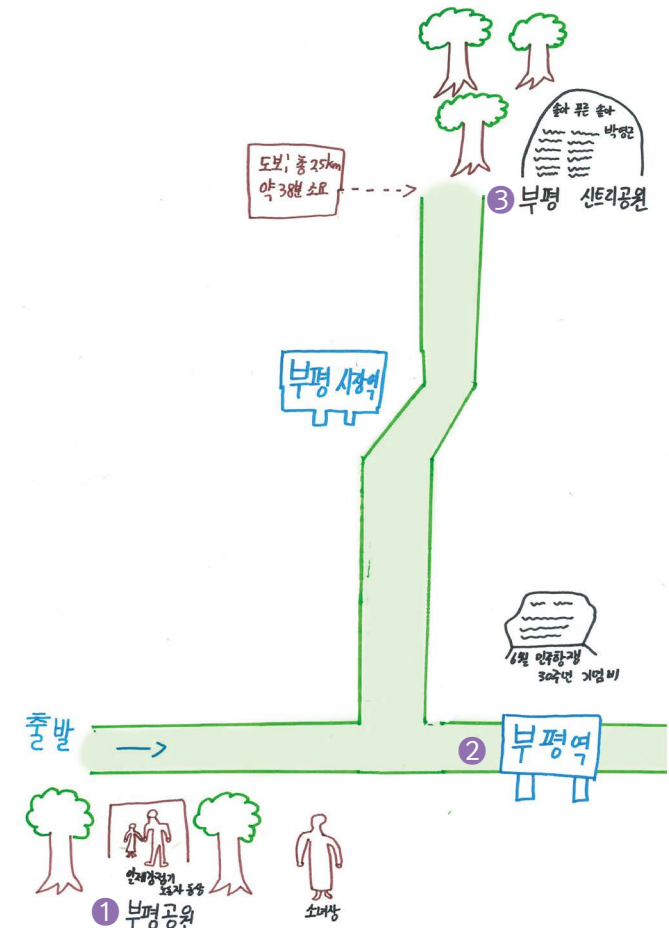
<출처 : 두산백과사전>

○○성당은 1980년대 공단 조성과정에서 주안5동성당으로 바뀌었습니다.
현재의 이름으로 바뀌기 전 이름과 그 이름에 담긴 의미는 무엇일지 생각해
봅시다.

옛 이름

담긴 의미

5 부평공원 일대 - 부평역광장 - 신트리공원



인천상정고등학교

만든이 박주원, 황윤성, 윤현수

① 부평공원 일대



부평공원 일대는 미쓰비시 제강 인천제작소가 일본 육군 조병창 (무기제작소)·조선기계 제작소 등 전쟁 수행을 위한 군수 공장과 시설들이 있던 곳으로, 미군기지·부평공원이 들어서 있었다.

특히 부평 공원에는 고향을 등진 채 국내외 각 지역에 끌려간 강제 징용노동자와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억하기 위해

강제징용 노동자상과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져 있다.

자신만의 강제징용노동자상, 평화의 소녀상을 그려봅시다.

② 부평역광장

부평역광장은 인천지역의 민주화운동과 노동운동에 있어서 동인천역과 더불어 항상 주요집회 및 시위의 현장이 되어왔다. 특히 87년 6월항쟁부터 현재까지 전국적 차원에서 전개된 민주화운동에 있어서 부평역 광장은 인천지역의 대표적인 민주화운동 공간이다.



‘호헌철폐! 독재타도!’는 무슨 의미일까요?

6월 민주항쟁을 통해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③ 신트리공원(박영근 시비)



박영근은 1980년대에 노동자의 정서를 풀어낸 대표적인 노동자 시인이다. 서울 근처에서 문학 활동을 시작했으나 본격적으로 시 창작활동을 하면서 살았던 부평(부평공단)이 그 시의 배경이 되었다.

‘술아 술아 푸르른 술아’를 새긴 시비는 박영근이 살았던 부평구청 인근의 신트리공원 한 쪽 축구장 옆길을 걷다보면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다.

‘술아 술아 푸르른 술아’를 들어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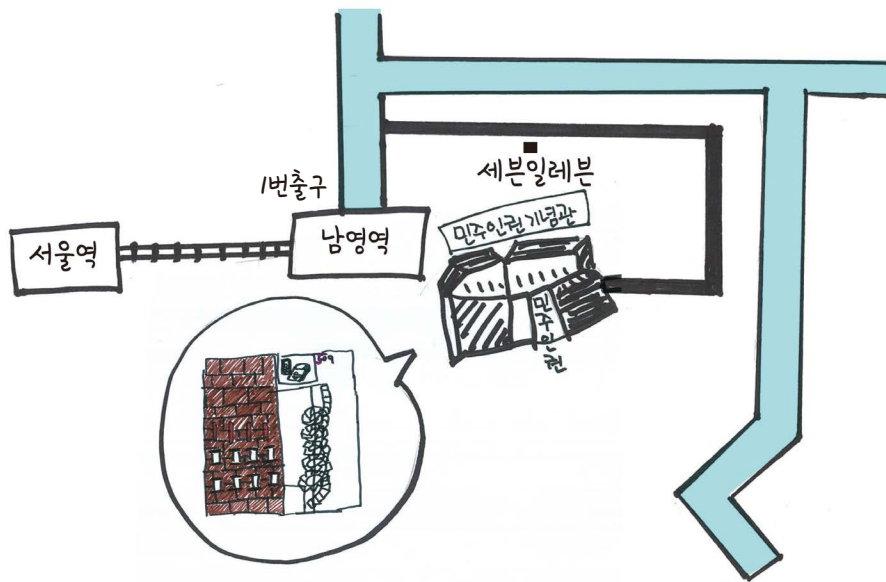


서울 · 경기권



6

민주인권기념관



부평동중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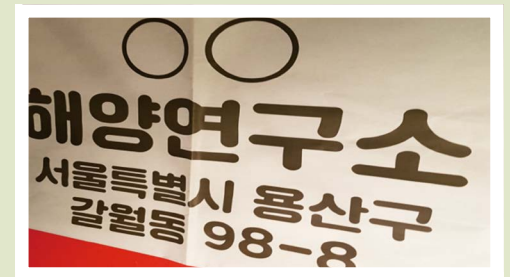
만든이 백승욱, 한태희

민주인권기념관



1970~80년대 대표적인 고문시설로 악명을 떨치던 남영동 대공분실이 한국 민주화 운동의 역사를 기억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민주인권기념관'으로 거듭나게 된다.

2018년 12월 남영동 대공분실의 이관식이 열렸고, 현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시민단체와 함께 임시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 '민주인권기념관'으로 정식개관할 예정이다.



<남영동대공분실-○○해양연구소로 위장>

大人코스

LOC 데거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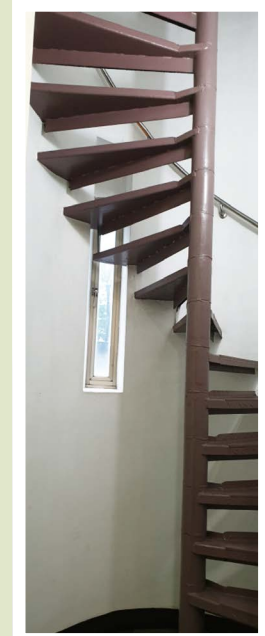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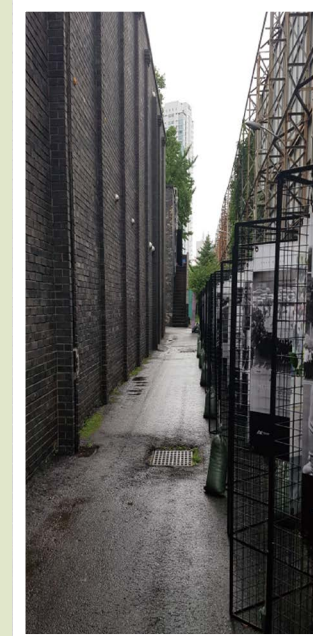
→ 이 곳은 지금의 민주인권기념관입니다.

○○ㅎ○○거스

→ 사람들이 알지 못하도록 위장한 이름입니다.

모즈ㅇ거거거

→ 여러분이 꼭 가야만 하는 바로 그 장소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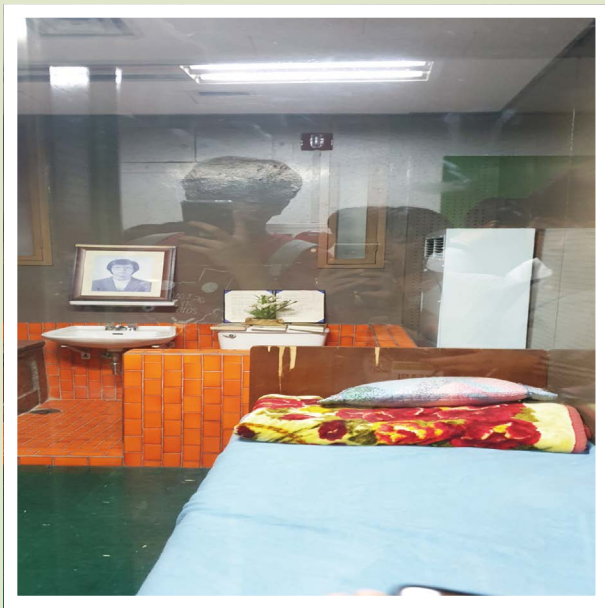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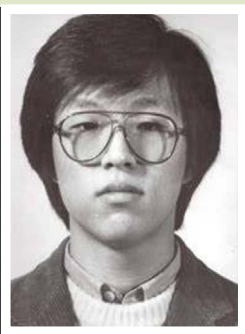


<출처: 영화 '1987' 중에서>

이곳은 영화 <1987>에서 하정우 (최환)와 김윤석 (박처원)이 만나서 서류를 주는 장면을 찍은 장소입니다. 여러분도 하정우와 김윤석이 되어 사진을 찍어봅시다.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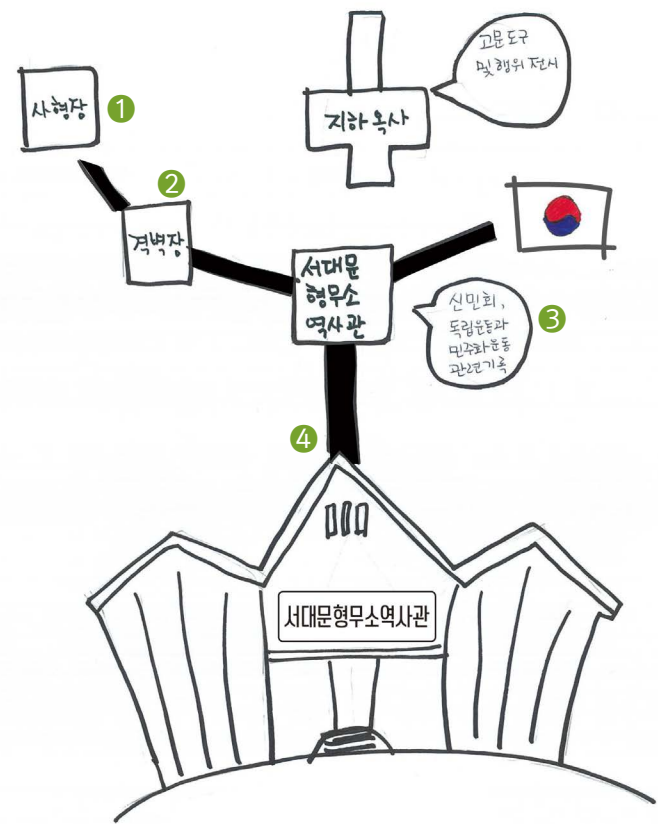
사형장 - 격벽장 - 신민회 - 서대문형무소



1987년 1월 학생인 박종철이 경찰에 연행되어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심문을 받다가 고문 때문에 사망하게 되었고, 이 사건은 6월 민주항쟁의 도화선이 되었다.

고문시설을 철거하지 않고 보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987년 6월항쟁이 끼친 사회적 변화는 무엇일까요?



송도고등학교

만든이 김석우, 심경수, 양석현, 최재일

① 사형장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의 가장 비극적인 공간일 수 있는 사형장의 모습이다. 이곳에서 많은 독립 운동가들이 생을 마감하였다.

사형장 입구에는 독립 운동가들의 한이 서려 더 자라지 못하는 통곡의

미루나무가 있고, 뒤편에는 시신이 심하게 훼손되어 가족들에게 돌려주지 못하는 시신을 따로 처리하는 통로인 시구문이 있다.

Q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사형장 출입구의 높이는 왜 낮을까요?

Q 사형장 입구 통곡의 미루나무가 잘 자라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② 격벽장



서대문형무소에는 격벽장이 있다. 이 격벽장은 수감자들을 분리 수용하여 운동을 시켰던 운동 시설이다.

Q 격벽장의 모양이 부채꼴인 이유는?

③ 서대문형무소역사관

항일 비밀 결사 '신민회'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2층 민족저항실에는 항일독립운동 단체인 신민회 창설 당시 인물들의 사진이 있다.

중심인물에는 회장 윤치호, 부회장 안창호 등이 있다.

독립운동에 이바지한 비밀 결사 단체인 만큼 그냥 지나치지 않고 한 번쯤은 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Q 위 사진들을 보고 신민회가 했던 여러 활동을 찾아볼까요?

④ 서대문형무소 속 민주주의



서대문형무소는 독립투사 뿐만 아니라 해방 이후 민주지사나 다양한 범죄자들을 가둔 곳이기도 하다. 지금은 '서대문독립민주축제'가 매년 열리고 있고 '독립민주지사 풋 프린팅 행사'도 진행하고 있다.

‘민주지사’로 4행시를 하며 그들의 마음을 되새겨봅시다.

민
주
지
사

Quiz

0.1 서대문형무소는 독립투사만을 수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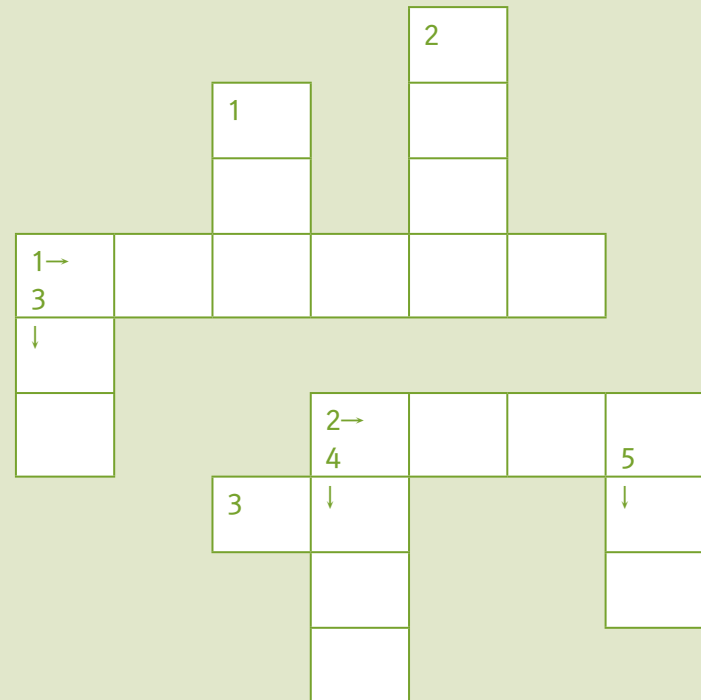
X

0.2 사형장에서 집행 후 심하게 훼손된 시체는 에 처리되었다.

0.3 1.1. 은/는 회장 윤치호, 부회장 안창호로 이루어져 있는 항일 독립 단체이다.

0.4 1.1. 수감자들은 에서 운동했다.

십자말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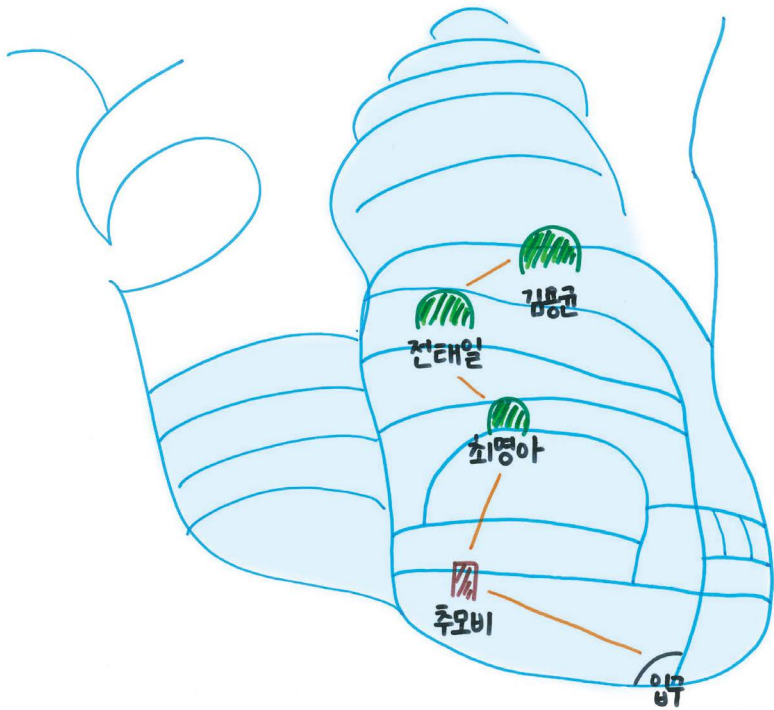


가로 1. 근대적 시설을 갖춘 한국 최초의 감옥
2. 우리나라 민주화를 위해 힘써주신 분들을 일컫는 말
3.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섬

세로 1. 가족들에게 돌려주지 못하는 시신을 따로 처리하는 통로
2. 사형수의 한이 서려 잘 자라지 않는다는 이름을 가진 나무
3. 독립신문을 창간한 독립운동가
4. 국민에 의한 정치제도
5. 사형집행을 하는 장소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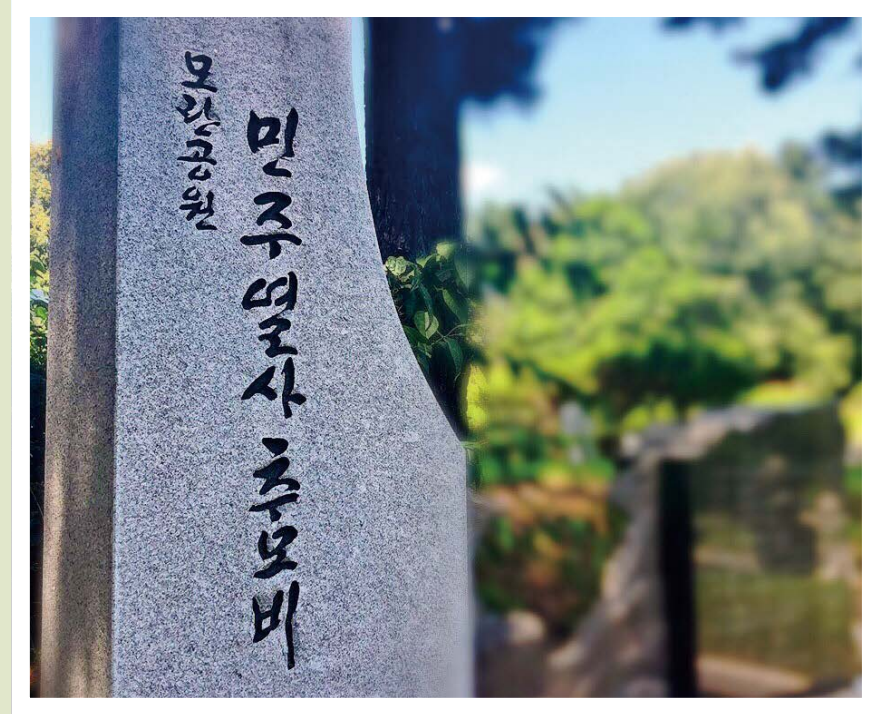
전태일 묘역 - 최명아 묘역 - 김용균 묘역



명신여자고등학교

만든이 최윤정, 유민영, 홍민주

마석 모란공원 민족민주열사 묘역



모란공원은 1966년 남한 최초의 사설 공원묘지이다.

1969년 권재혁, 1970년 전태일, 1971년 김진수, 1973년 최종길이 모셔지기 시작하면서 40여년에 걸쳐 민주화와 민중해방을 향한 삶을 살다 돌아가신 120여분의 열사들이 모여 있는 묘역이다.

모란공원은 **역사를 시민 스스로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이다.

우리는 ‘노동자의 인권’, ‘산업 재해’에 초점을 맞추어, 과거와 비교해 현재의 노동인권이 얼마나 많은 발전을 이루었는지 알리려 노력했다. 하지만 조사와 답사를 통해, 정말 많은 발전이 이루어졌는지 의구심이 들었다.

아직도 구의역, 강남역, 성수역, 남양주, 제주, 부산 등 모든 지역에서 비정규직-하청업체와 관련된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여전히 비정규직 노동자는 효율성의 미명 아래 고통 받고 있으며, 산업재해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효율’이라는 것이 과연 사람의 목숨만큼 가치 있는 것일까? 우리는 청소년으로서 이러한 상황을 알려 **노동의 권리와 가치를 인정받는 사회**로 나아가길 바라는 바이다.

우리는 모란 공원의 많은 민주열사 분들 중에서도 전태일, 최명아, 김용균 세 분에 대한 내용을 이 책자에 실었다. 공원에 계신 모든 분들이 **사회가 한 발자국 발전하는 데 일생을 바친 분들**이라는 것을 부디 기억하면서 이 책자를 읽길 바란다.



잊지 않을 노력

‘**검발 하루하루가 못 견디게 괴로운 연속이다.**’

위 제목은 1967년 3월 17일의 일기 중 일부로 저 한 문장만으로 우리는 당시 노동 현실을 엿볼 수 있다. 그의 일기가 노동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만큼 몇십 년이 지난 지금도 전태일 열사의 민주운동을 기념하는 활동들이 펼쳐지고 있다.

당신이 이 편지를 받은 대통령이었다면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어떤 답장을 했을까요?

전태일이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 일부

저희들끼리 토론 17. 6 1층시간의 작업시간은 단축
바정신도 14 10시간과 124한으로
1개월. 휴일 2은중. 일요일은바. 휴일로 쉬어줄. 희망
충남다
전남공관론. 정유하에 한해 두십시오
사다공의 수장. 현. 70원이다. 100원들. 50 100원
인상하십시오.
절대로 우리는 요구가 없습니다. 당해합니다.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요구입니다.
거주주 측에서라도 중분히 외할수 있는 사안입니다.



사라지는 것은 없다

최명아는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발로 뚫은 노동 운동가이다. 그녀는 인천지역노동조합협의회 교육부장과 조직부장으로 활동했고 민주노총 조직부장으로 대학을 졸업한 직후부터 젊은 나이에 죽음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투쟁했다.

지금도 노동이라는 중요한 가치를 평가절하하는 이들이 존재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 노동자들이 존재한다. 우리는 안타까운 과거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계속 기록하고, 후대에게 알리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1998년 2월 24일, 뇌출혈로 사망한 최명아 열사를 기억하고 잊지 말자.

생각 펼치기

당신이 최명아라면 투명상자에 무엇을 넣고 싶었을까요?

그 이유는

입니다.

만약 자신이 여성 노동운동가였다면,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입니다.



김용균법의 개정

25살 비정규직노동자 김용균은 2018년 12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안타깝게 숨지고 말았다. 그의 어머니가 언론에 사건을 알리고,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이 비극적인 사건을 보며 효율성을 최우선시 하며 노동자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는 대기업을 비판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비롯해 산업 현장의 안전규제를 대폭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이 개정되었다.

생각 펼치기

열사의 뜻은 '나라를 위해 절의를 굳게 지키며 바른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사람'입니다. 노동자 김용균을 열사라고 지칭할 수 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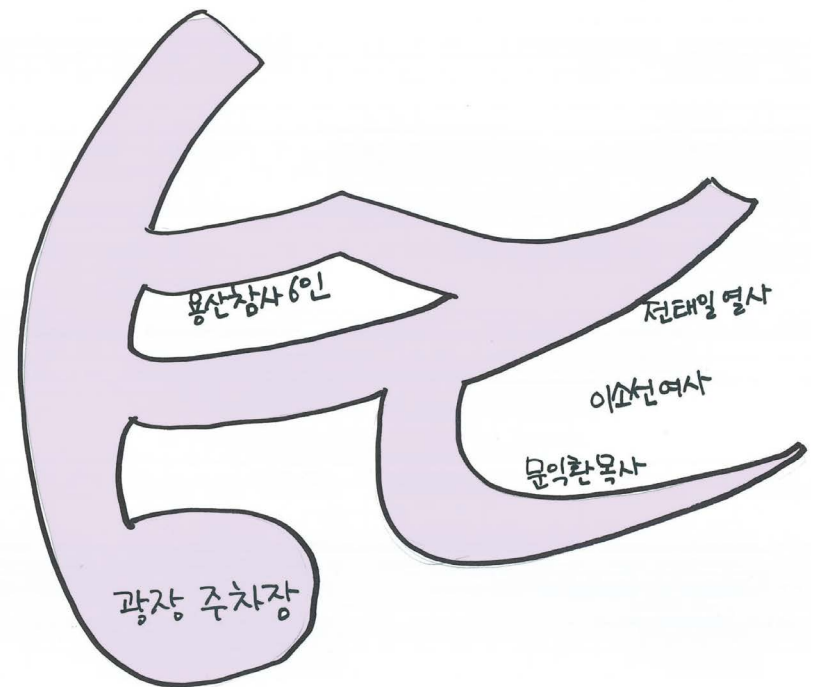
그 이유는

입니다.

99명이 행복하기 위해 1명이 희생하는 사회는 정의로운 사회일까요?

9

전태일 묘역 - 이소선 묘역 - 문익환 묘역



인천남동고등학교

만든이 안준형, 김기현, 이상목, 권민서

모란공원(마석 모란공원 민족민주열사 묘역)

전태일

모란공원은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묘역 중 하나로 민주화 운동가, 노동 운동가 등이 안장되어 있다. 안장된 인물의 대표적인 운동가들은 전태일, 이소선, 최명아 등이 있다.



전태일은 1960년대 평화시장 봉제공장의 노동자였다.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노력하다 노동자의 열악한 상황을 알리고자 법전과 함께 분신자살하였다.

당시 전태일은 분신 자살을 하면서 라고 외쳤다.

전태일은 '근로기준법 준수를 하라' '우리는 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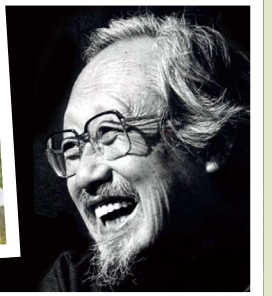
내 죽음을 헛되이 하지마라'라고 말하였다.

그 시대 봉제공장 노동자들의 생활이 어떠했을까요?



-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 대한민국의 노동운동가이자 민족운동가
- 전태일 분신자살을 계기로 노동운동에 투신
- 노동운동가들을 자신의 자식처럼 대해 “노동자들의 어머니” 라고 불림
-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의 초대 회장 역임

이소선 여사가 노동자의 어머니라고 불리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출처-가톨릭 일꾼

문익환은 1976년 3·1 민주구국선언 사건으로 투옥된 이후 60대의 노구를 이끌고 민주화와 통일 운동의 길로 접어든다. 이후 교도소에 수감되고 75세의 나이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 반 평생을 민주화의 길을 걸으며 당당히 목소리를 냈다.

3·1민주구국선언

1976년 3월 1일 명동성당의 3·1절 기념 미사와 기도회에서 윤보선·김대중·함석헌 등을 중심으로 각계 지도층 인사들이 발표한 민주구국선언
(출처 : 다음백관)

70년대 민주화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인천초은고등학교

만든이 조세현, 이봄

모란공원



대한민국 최초의 사설 공동묘지라고 한다. 13,000기의 묘소가 있는데, 민주화운동가도 안장되어 있다.

민주화 운동가와 노동운동가 뿐만 아니라 의문사한 사람도 안장되어 있다.

이곳에는 문익환, 전태일, 최명아, 우동민, 김용균 등이 안치되어 있다.



우동민

우동민은 2000년대 초 장애운동을 시작하여 활동지원서비스 제도화를 위한 한강대교 기어가기 투쟁에 참여하였다. 그러던 중 장애계와 인권단체들은 입법 예고한 장애인활동지원법안(대상 및 시간제한, 본인부담금 인상 등)에 분노하여 2010년 11월 초, 국가인권위원회를 점거했다. 그 해 12월 3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엘리베이터 가동, 전기 및 난방 공급을 중단하고 활동보조인 출입과 식사 반입을 통제하는 등 반인권적 행위를 하였다. 다른 활동가들과 버티던 우동민은 12월 6일 고열과 허리복통을 호소하며 응급차에 후송됐으나 이듬해인 2011년 1월 2일 사망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우동민 사망 7년만에 인권침해 사실에 대한 공식사과
(2018.1.2. 연합뉴스 발췌)

사회적 약자(장애인, 여성, 아동, 노인 등)의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할 수 있는 약속 3가지를 써보세요.

약속 1.

약속 2.

약속 3.

만든이 (학생)

청량중학교 (김정운 신연희 조나영)
부일중학교 (김지후 박용진 엄설원 임수민)
인천청라고등학교 (김우석 이해민 장준현 조연우)
강화고등학교 (김하준 김한기 현재근)
인천상정고등학교 (박주원 윤현수 황윤성)
부평동중학교 (백승욱 한태희)
송도고등학교 (김석우 심경수 양석현 최재일)
명신여자고등학교 (유민영 최윤정 홍민주)
인천남동고등학교 (권민서 김기현 안준형 이상목)
인천초은고등학교 (이봄 조세현)

제작지원 (교사)

동산고등학교 교사 김문경
인일여자고등학교 교사 강혜원
인천과학고등학교 교사 김미나
인천연송고등학교 교사 최재호

편집 (교사)

인일여자고등학교 교사 강혜원
인천과학고등학교 교사 김미나

인천민주로드 길잡이

유동우 어느돌맹이의 외침 저자
이희환 인천도시공공성네트워크
이우재 온고재
이형진 민주노총인천지역본부 일반노동조합

제작일 2019년 12월 30일